

침 목

1501.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침묵... 신적인 침묵 속에 자신을 물어버린 영원하신 말씀의 살아있는 침묵...!

그분은 말이 없으셨고, 말이 없으시며 계속 말이 없으실 것입니다. 일상의 침묵을 살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침묵, 성체 안에 계신 그분의 침묵이 영혼 안에 형성되도록 모든 것에서 영혼이 비어지는 것... 보다 순수한 사랑으로 침묵하는 것...!

1502. 내적, 외적으로 깊고 짙은 침묵은 하느님과 영혼이 생생하게 만나게 해 줍니다. 그대의 삶 속에 깊은 침묵을 만드십시오. 모든 이가 신비스런 그분의 현존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1503. 침묵이 나를 추적합니다. 생생하고 활기를 주는 침묵,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요구하는 그 침묵이 나를 추적합니다. 침묵은 영혼을 도와주는 길이 되어줍니다. 순결한 봉헌과 사랑을 살아가려는 영혼은 이 길을 통해 자신의 위대한 야망들을 실현하여갑니다.

1504.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그 신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봉쇄의 신비스러운 침묵 안에서 그 신비들을 살아가라고 우리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헤아릴 수 없이 풍요로운 삶입니다. 하느님의 비밀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05. 지성소의 침묵, 살아 있는 성광의 침묵, 성합 안에 모셔진 성체의 침묵과도 같은 깊은 침묵을 지키십시오.

1506.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말이 없으셨는지 그분의 침묵 앞에 원수들조차 당혹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분의 침묵은 실패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승리자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말하게 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수난 중의 침묵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침묵이 되었습니다.

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패배하셨을 때, 가장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1507. 이 지상 것들은 모든 것이 공허하고 비어 있으며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깊은 침묵 안에서 충만함을 만납니다.

1508. 우리들의 침묵은 깊고, 살아 있으며, 심오하고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산된 에너지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시켜 하느님 사랑의 신비스런 정상으로 까지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509. 말, 표정, 행동 등의 외적인 침묵... 가장 순수한 자기 잊음의 내적인 침묵. 우리 자신을 잊어 버리고 우리가 잊혀졌다고 느끼는 침묵... 생명을 주고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죽어가는 침묵...

1510. 위대한 일들은 침묵을 요구합니다. 나자렛의 침묵은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 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분위기입니다. 절대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마리아의 신비를 들으며 살아가는 이 생생한 침묵의 뻗뻗한 숲 안으로 깊이 들어 가십시오.

1511. 강생에서 골고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삶은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의 부활에도 계속되었고 매일 매일의 신비, 모든 신비들을 요약하는 성체의 신비 안에 지금도 여전히 신비로운 침묵으로 남아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신비가 존재합니다. 침묵 속에 응답하고 전진하며 유지되는 이 성소의 신비야말로 침묵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512. 나자렛! 얼마나 많은 비밀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지! 얼마나 많은 침묵과 단순함, 사랑과 겸손, 얼마나 많은 순종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이 침묵의 영역으로 깊이 파고 드십시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대의 귀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듣기 위해 침묵하십시오.

1513. 가끔 하느님의 침묵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514. “오직 하느님”의 숲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더 이상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잠잠하며 사물에 대한 소문도 도달하지 못하는 곳...! 깊은 고독의 농도 짙고 감동 어린 울림 외에 아무 것도 감지되는 않는 깊고 깊은 그 침묵 안으로... 영혼의 가장 깊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침묵이야말로 참으로 심오한 침묵입니다.

1515. 침묵...! 우리 영혼 안의 침묵.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아무 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게 되기를...!

하느님께서 잠잠하실 때 그 침묵은 영혼을 전율케 하고 신화(神化)합니다. 이 침묵 앞에 영혼은 불평 없이 잠자코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입술에 미소를 머금은 채 침묵하며 영혼도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16. 나자렛의 신비...! 하느님의 무한한 고요! 이 단조롭고 똑같이 반복되는 나날들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만일 그대가 모든 것에서 비워지고, 하느님으로 가득 찬 일상의 침묵 안에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요구를 알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여기, 침묵 안에서 관상자는 하느님으로, 생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형제들과 우주로 가득 찬 고독인 것입니다.

1517. “울려 퍼지는 고독, 소리 없는 음악... (십자가의 요한, 영적 찬가, 15절)”

이는 침묵 속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이자 생명과 형제들과 우주로 가득 찬 고독입니다.

1518. 이제 인간의 말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표현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침묵 속에 사십시오. 충분한 삶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519. 고독은 결코 도피도, 부정도 아닙니다. 영혼이 하느님 안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심연의 현존입니다.

1520.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 없이 사는 법을 배워 익힐 때 침묵 안에 살게 됩니다.

1521. 내적, 외적의 깊은 침묵 안에서 온 세상을 위한 풍요로움이 태동합니다. 침묵 안에 잠긴 영혼은 세상의 모습을 변화 시킵니다.

1522. 하느님께서 당신 침묵 속에 그대를 숨겨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를 종각처럼 사용하셔서 그리로부터 '하느님은 초월자시고 절대자시라고' 외치는 사랑의 소식을 끊임 없이 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 소리가 나는지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1523. 하느님의 정적은 놀라운 만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 존재의 가장 마지막 구석까지 점령하고 차지하십니다. 이 은밀한 침묵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이 하느님의 정적 앞에 우리 자신을 용감하게 열어 놓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점령 될 때 형제들을 위한 따스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감돌게 될 것입니다.

1524. 예,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신비스런 침묵은 신적 대화의 반향입니다. 그래서 침묵에 잡음이 낄 때 대화는 끊어지고 세상은 그 반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화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요!

1525. 만일 그대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침묵하십시오!

1526. 밖으로 향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1527. 하느님의 침묵은 그분의 무한함만큼이나 심오합니다. 그분의 침묵 앞에, 영혼은 고요와 사랑, 생명과 기쁨, 넘치는 힘으로 흠뻑 젖어 듭니다.

하느님의 침묵...! 소리 없이 내리는 잔잔한 사랑의 비와도 같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신비스런 침묵.

1528. 침묵은 관상자의 파수꾼입니다. 주님, 당신의 도성에. 저는 파수꾼을 세웠나이다!

1529. 침묵... 무엇보다 마음의 침묵!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쌓아두지 않는 침묵. 상처 난 자애심을 간직하지 않는 침묵!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랑하는 데에 몽땅 다 써버리고 사랑 밖에 다른 것을 찾을 시간도, 여유도 없는 침묵.

1530. 고독 안에는 많은 고독들이 있습니다. 심연 안에는 많은 심연들이 있습니다. 봉쇄의 삶 안에는 많은 봉쇄들이 있습니다. 침묵 안에는 많은 침묵들이 있습니다...

1531. 제 마음은 얼마나 신적 언어를 갈구하고 있는지요...! 그런데도 이 불쌍한 영혼은 자주 시장 어귀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침묵 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분이 휴식하기 위한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탓으로 하나님이 침묵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1532. 감각의 침묵, 능력의 침묵, 본성의 침묵. 그것은 사랑의 깊은 영역에서 싹터 나오는 심오한 침묵입니다.

1533.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할 때 비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1534. 나는 하나님의 고요를 좋아합니다. 이 무한한 고요는 영혼 깊이 스며 들어 영혼을 변화 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이 고요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 침묵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잔잔히 흘러 내리는 '실로의 물'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저 소리 없는 기도의 신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1535. 그분을 듣기 위한 침묵, 흡수하는 침묵... 생명을 주는 침묵. 영혼이 하느님의 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아무 것도 들리는 것이 없다면,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침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감동적이고, 그분의 고동 소리보다 더 강하며, 캄캄한 밤과 고독과 추위와 죽음보다 강한, 그분의 침묵을 듣게 될 것입니다.